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1위 무등중 중학 야구 '광주 찬가'

2위 동성중

3위 충장중

문광부장관기 전국대회 우승~3위까지 싹쓸이

무등중과 동성중, 충장중 등 광주지역 중학교 야구팀이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대회에서 한국 중학야구 사상 처음으로 1~3위를 모두 휩쓰는 쾌거를 일궈냈다.

광주 무등중은 22일 경남 남해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제 50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중학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강호' 광주 동성중을 16-2로 대파하

고, 지난 2002년에 이어 대회 2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맛봤다.

또 지난 21일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동성중에 아쉽게 패한 충장중도 3위에 오르는 등 이번 대회에선 1~3위를 광주지역 중학교가 모두 석권했다. 특정지역 팀이 1~3위에 오른 것은 한국 중학교 전국야구대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무등중의 우승은 안정된 마운드와 폭발력 있는 팀 타선이 밑거름이 됐다.

인더핸드 투수인 '에이스' 이정호(3년)는 130km대의 힘있는 직구와 변화구가 일품이고, 또 다른 '에이스'인 좌완 유창식(3년)은 볼 스피드는 빠르지 않지만, 스트라이크존 구축구석을 찌르는 변화구가 감점이다. 이들은

모두 6경기에 나서 9실점에 그칠 정도로 호투했다.

또 타선에선 배동준-백왕중-유창식-이영기-이석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화력쇼가 돋보였는데, 동성중과의 결승전서도 모두 14안타를 합작하며 10득점을 올렸다.

이밖에 좌익수 임영섭과 2루수 서흥규, 우익수 서재홍 등도 수비와 타격에서 활약하며 팀 우승에 힘을 보탤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3일 동안 열린 문광부 전국 중학야구대회는 지역 예선없이 전국 야구명문중 75개팀이 참가해 조별 토너먼트로 74경기를 펼쳤으며, 우승팀인 무등중은 7연승을 거뒀다.

◇대회 전적 및 시상 내역

▲우승=무등중 ▲준우승=동성중 ▲공동 3위=충장중, 경성중 ▲최우수 선수상=이정호(무등중 투수) ▲우수투수상=유창식(무등중 투수) ▲감투상=김도현(동성중 투수) ▲수훈상=배동준(무등중 포수) ▲타격상=김민재(동성중 우익수·타율 0.571) ▲타점상=황승현(경남중 투수·12타점) ▲감독상=김성일(무등중 감독), 강대성(동성중 감독) ▲지도상=이강욱(무등중 부장), 이운택(동성중 교장) ▲공로상=김재창(무등중 교장) ▲김섭형(동성중 교장)

“최고 권위대회 우승 기쁨 두배”

김성일 무등중 감독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쁨이 두배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무등중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성일 감독(39)은 “대회 우승으로 올 소년체전 예선 탈락의 수모의 씻을 수 있게 됐다”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 감독은 “올 겨울 훈련을 착실하게 한 게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특히 3학년인 이정호와 유창식 등이 버티고 있는 안정된 마운드와 배동준, 백왕중, 유창식, 이영기, 이석주로 이어지는 막강 타선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경성중과의 준결승이 가장 힘든 경기였다. 4-0으로 앞서가다 6회에 4점을 내준 뒤 7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1점을 뺏아 승리했다”며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에 임한 게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3학년 선수들의 체격조건이 좋고 기량이 뛰어나 벌써부터 고교팀

들의 스카우트 전쟁이 한창”이라며 “우승까지 했으니 선수들이 고교진학을 놓고 행복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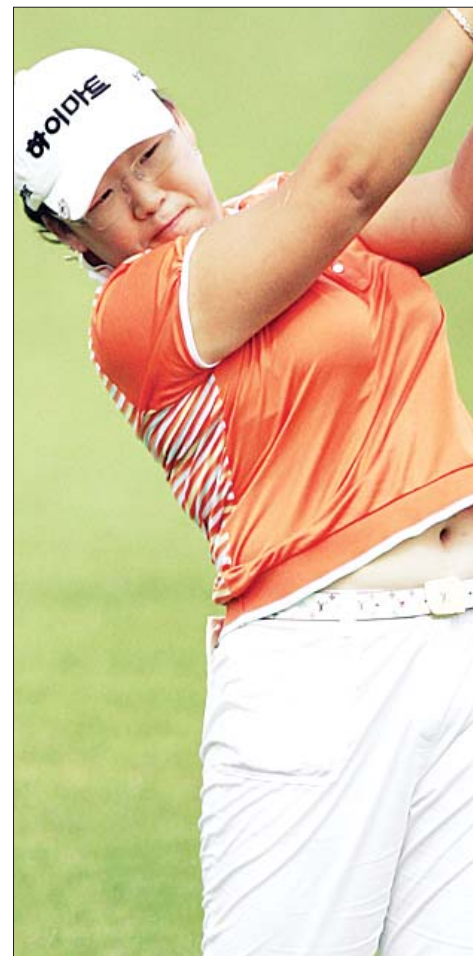
김 감독은 광주지역 3개팀이 1~3위를 석권한 것에 대해선 “광주에는 오랜 전통을 지닌 7개의 초등학교 야구팀이 있는데, 기본기를 철저히 배워 (광주)중학교 야구팀 4곳으로 진화한다”면서 “광주 중학교 야구가 전국 최강으로 꼽히는 것도 이처럼 튼튼한 뿌리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우승, 바로 이 맛이야! 22일 경남 남해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제 50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중학야구대회 결승에서 동성중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무등중 선수들이 모자를 벗어 던지는 세레모니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박병문(64·광주시 서구 화정동5씨)>

거침없다, 신지애

KB스타투어 2R 단독선두



‘육십퍼거기 꼬마천사’ 신지애(19·하이마트)가 거침없이 시즌 네 번째 우승과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향해 내달렸다.

신지애는 22일 경북 포항 오셀힐 스크 골프장(파72·6천248야드)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2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때려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전날 64타를 뺏아내며 2타차 선두에 올랐던 지은희(21·캘러웨이)는 신지애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끝에 1타 밖에 줄이지 못하면서 1타 뒤진 2위(9언더파 135타)로 내려앉았다.

24일 US여자오픈 출전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도 출전을 강행한 신지애가 우승컵을 차지하면 1996년 박세리(30·CJ), 1997년 김미현(30·KTF)에 이어 사상 세번째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보이지 않았던 4개를 뺏아낸 신지애는 13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이 아슬아슬하게 그린에 못 미쳤을 뿐 사실상 그린 적중률 100%의 완벽한 샷을 뺏아냈다.

“포지션 경쟁부터 이겨라”

베어벡호, 아시안컵 47년만의 우승 향해 전훈 돌입

베어벡호가 47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7월7~29일) 정상도전을 위한 서쿠포 전지훈련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K-리그와 선수차출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펠 베어벡 축구대표팀 감독은 23일 오전 11시10분 김포공항에서 23명의 태극전사들과 함께 아시안컵 소집훈련 첫 무대인 제주도 서귀포로 날아간다.

베어벡 감독은 우선 29일 이라크와 평가전(오후 8시·제주월드컵경기장)을 아시안컵 주전 확정을 위한 ‘육식 가리기’의 시발점으로 보고 이번 전지훈련에서 치열한 포지션별 생존경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 축구는 아시안컵에서 1956년과 1960년 1,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이후 무려 47년 동안 ‘무관(無冠)’의 아픔을 겪어왔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영광을 맛봤지만 유독 아시안컵에서는 ‘중이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줬

던 것.

이에 따라 47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감독직까지 걸고 나선 베어벡 감독은 다 음달 6일 결전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기 전까지 치밀한 훈련계획을 세웠다.

23일 오후 5시 서귀포 강창학구장에서 첫 훈련을 시작하는 베어벡호는 27일까지 매일 두 차례씩 오전과 오후에 강도높은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29일 이라크전을 마친 뒤에는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로 훈련 장소 옮기고, 내달 5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끝으로 아시안컵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번 서귀포 전훈에서 베어벡 감독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주전경쟁을 통한 팀 분위기 상승과 단기간에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베어벡 감독은 모든 포지션에 2~3명을 선발해 치열한 주전 다툼을 예고했

다. 어느 정도 주전 선수가 윤곽을 드러낸 포백(4-back)과 달리 미드필드진과 최전방 공격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선 갑작스런 수술로 전열에서 빠진 ‘진공청소기’ 김남일(수원)의 빈자리 다 톨이 눈에 띈다.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이호(제니트), 손대호(성남)와 더불어 김남일의 대타 멤버로 이름을 올린 오장은(울산)이 ‘더블 볼란테’ 자리를 놓고 자신의 기량을 겨루게 된다. 또 최전방 측면 날개 자리를 놓고 벌이는 염기훈(전북), 이근호(대구), 이천수, 최성국(이상 울산)의 치열한 가싸움도 이번 서귀포 전훈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밖에 무릎 부상 중인 이동국(미들즈브러)이 아시안컵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회복해 베어벡호의 원톱 요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이승엽 3일 연속 특타 100홈런 정조준

타격 부진으로 6번 타자로 강등된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3일 연속 특타를 치르고 일본 통산 100홈런 달성을 향한 타격감을 조율했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치’는 22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3일 연속 다른 선수보다 일찍 경기장에 나와 40여분간 특별 타격 훈련을 했고 300번이나 방망이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타격감이 좋지 않을 때 오후 1시부터 도요동 전장을 가르곤 했다.

이승엽은 처음에는 왼쪽 또는 가운데 방향으로 직선타성 타구를 날리는데 주력했고 몸이 풀린 후에는 넘치는 파워를 앞세워 도요동 우측 스탠드에 홈런포를 쏘았다.

인터리그 홈런왕을 2년 연속 차지했던 이승엽은 시즌 초부터 이어진 타격 슬럼프로 올해 교류전에서는 타율 0.241에 홈런 3개, 6타점을 올리는데 그쳤다. 요미우리에는 23~24일 세이부, 26일 라쿠텐전을 끝으로 인터리그 24경기를 모두 마친다.

이승엽이 참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만 1개만 남겨둔 일본 통산 100홈런이 부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100홈런은 요미우리 역대 선수로는 세 번째로 빠른 페이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비중 있는 기록이다.

출발 좋다, 김미현

LPGA 웨그먼스 1R 4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맘언니’ 김미현(30·KTF)이 시즌 두번째 우승을 향해 기분좋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미현은 22일(한국시간) 뉴욕주 피츠버그의 로커스트힐골프장(파 72·6천32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웨그먼스 LPGA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6언더파 66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3타 뒤져 공동 4위가 돼 우승 경쟁에 뛰어든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02년 준우승, 2004년 공동 2위, 2005년 공동 10위, 지난해 공동 5위 등 유난히 로커스트힐골프장에서 성적이 좋았던 김미현은 “머칠 전 몸살이 나서 고생했는데 꼭 쉬었더니 지금은 감각이 아주 좋다”면서 “코스감이 마음에 들어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언더파 70타를 친 김영(27), 강지민(27·CJ), 김초롱(23), 김인경(19)이 공동 7위에 포진해 선두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